

▶ 다음 질문으로 서로의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Q.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찬 579장) / 요게벳의 노래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 모임기도 (셀리더 또는 맡은 사람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 히브리서 11장 23-26(우리말성경)

- 23.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24.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 25.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 26.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 금주 말씀 되새기기 / “믿음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1. 믿음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사내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끝까지 아기를 숨기고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확고히 믿으며 모세를 보호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2.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요게벳

그러나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애착을 형성하며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건강한 분리를 통해 자녀가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 극단적인 상황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자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결국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며, 이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3. 모세를 살린 여성들

모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한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산파 십브라와 부아, 어머니 요게벳,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까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모세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며,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헌신이 큰 역할을 하며, 그들의 사랑과 품음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성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4. 건강한 자기(Self)로 자라난 모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모세는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건강한 애착과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아래의 질문으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갖으세요!

1. '출애굽기 1장 15-17절'을 읽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었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 주었습니다.(출 1:15-17, 우리말성경)*

2. 신앙의 여정에서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결국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때 처음 만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을 셀원들과 진솔하게 나눠봅시다.

**참고 이야기 :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 /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삭 /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객지에서 고생한 야곱 / 형들의 시기로 인해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요셉*

3.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고, 특히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모세는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나요? 셀원들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한 명을 소개해봅시다.

▶ 나누었던 내용과 함께 아래의 기도제목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1. 믿음을 지키는 용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2.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들이 건강한 애착과 분리를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3.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임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평안을 주세요.

▶ 지금은 셀 헌금 시간입니다.

-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셀 리더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